

“쉽게 돈 번다”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중〉 처벌에도 끊이지 않는 보험범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별급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범위가 다양하지만 범죄자들은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오만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 날수록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고의로 사고를 내

범행 인정하고 변제하면 감형까지...관용적 인식 변화 시급

사기 증가에 보험사 비용 상승...일반 가입자 보험료만 늘어

거나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일명 ‘손목 치기’ 방식까지 다양하다.

A(36)씨는 2020년 10월 2일 오후 3시께 광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왼쪽팔을 고의로 접촉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피해 접수를 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7만여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21년 8월 19일까지 6차례 동종수법으로 총 44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 A씨는 2022년 2월에는 서울에서 고의로 왼쪽 어깨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에 부딪친 다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자 경찰에 뺨소시 신고를 하기도 했다. 범행

이 드러난 A씨는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 회교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200여만 원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4명이 징역 4-6월형을 선고 받았고, 5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3월에 1년의 집행유예, 나머지 한 명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담당자는 “범죄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량 접촉 사고 등은 일상에서 흔하고 이로 인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범죄에 관용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1년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해 12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하면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이 없는 B(여·68)씨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우회전 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트

럭크 부분에 고의로 손을 부딪힌 다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149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 21일 오전 11시50분께에도 광주시 동구 한 사거리에서 후진하는 화물차에 다가가 일부러 넘어진 뒤 화물차에 부딪힌것 처럼 운전자를 속여 치료비 명목 등으로 21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편취한 보험금을 반납 한 점 등이 고려돼 올해 2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인식이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와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제공)

“제발,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해 주세요”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오체투지’ 지난해 전국 돌며 요청했지만 응답 없자 다시 거리로 나서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이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또다시 오체투지(五體投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국을 돌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지원’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와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근본 대책 수립’ 결의

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발달장애인과 부모,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최종중 융합돌봄 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을 사적인 일로 치부해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22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오수인씨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지원은 개인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부모연대와 장애인 등 참가자들은 광주시교육청까지 800여m 거리의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최인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결국 평생 지원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돌봄의 책임을 개별 가정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모들은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등 12개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글 재난문자’ 이주노동자엔 ‘낮 놓고 가자’

인권단체 “시스템 개선해야”

최근 부산 지진(규모 4.8)으로 발송된 재난문자가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문자가 ‘한글’로만 작성·전송돼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없어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단체)는 1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문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위급 상황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가 한글로만 발송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진·폭우·폭염·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문자를 보내 대피할 수 있

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도입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자연재해, 기상특보, 정전, 화재, 바이러스 유행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송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기상청으로 발송처가 일원화됐고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에도 발송 권한이 부여됐다.

단체는 “긴급재난문자는 10년의 시간 동안 발전해 왔으나 한국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래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개선해 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긴급재난문자를 이주노동자 각 나라의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은 통신사와 각국 대사관과 협조하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일만에 또...전남 오늘 폭염주의보

담양·곡성·순천·광양 등

담양, 곡성, 구례, 보성, 광양, 순천 등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전남지역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해제된지 4일만에 다시 폭염이 찾아온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담양, 곡성, 구례,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고 17일 예보했다.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날씨가 맑아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진 탓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18일부터 대기 하층에서 남풍류가 불어와 습도가 높아져 최고체감온도가 오른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18일 낮 최고기온은 29-35도까지 오르겠고, 19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 17-22도, 낮 최고기온 29-35도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다. 다만 20일부터는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광주-전남에서 2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지난 폭염주의보 발효 기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명에 달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